

# 토론의 논제와 구성 및 평가

# 논제의 의미와 선정 기준

- Proposition(pro/찬성하다 + position/입장-반대어는 opposition)-찬반이 공히 대립할 수 있도록 논쟁적이어야!
- Resolution(의회의 안건)
- 하나의 중심적인 논제를 명시할 것-한 가지 이상의 쟁점 포함하는 논점은 피한다(“공무원 윤리강령을 강화하고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”?)
- 찬반 어느 한 편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정서적 표현이 담긴 용어는 배제할 것(“낙태를 합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”? /’기부금’ 입학제와 ‘기여’ 입학제의 차이는?)
- 가치 중립적이어야 한다-논제에 목적이 포함되면 공정성을 잃는다(“거리 안전을 위해 CCTV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”?, “수자원 확보를 위해 간척사업을 실시해야 한다”?)

# 논제의 공정성

- 찬반이 공히 균형적으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논제여야-”고교 평준화를 실시해야 한다”는 ”고교 평준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”로, 사회적 상황에 따라 “스크린쿼터제를 축소해야 한다”/”스크린쿼터제를 폐지해야 한다”/”스크린쿼터제를 확대해야 한다” 등을 신축적으로 채택해야 한다

# 논제의 명확성과 시사성

- 구체적 용어를 선택하거나 물리적/시간적 제한을 정함으로써 논의 방향을 명시할 것(“이라크 파병해야 한다”를 “이라크 전투병 파병해야 한다”로, “인간 복제를 허용해야 한다”를 “인간 배아복제를 허용해야 한다”로, “방송 심의제도를 폐지해야 한다”를 “방송 사전 심의제도를 폐지해야 한다”로)
- 되도록 시사성 있는 주제로 선정한다

# 사실 토론 논제 구성법

- 과거, 현재, 미래에 관한 사실을 설정한다
- 과거 사실 토론-법정 토론
- 현재 사실 토론-"양심적 병역 거부는 위헌이 아니다", "문화재 보호법이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다", "정부의 시장 간섭은 위헌이다"
- 미래 사실 토론-"대북 현금지원 사업은 남북 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"

# 가치 토론 논제 구성법

- 현상에 대한 평가적 주장인 가치 토론 논제에는 태도, 믿음, 생각, 이념, 조건 및 행위의 가치에 관한 찬성과 반대
- 긍정문 형태-”종교적 병역 거부는 윤리적이다(바람직하다, 정당하다, 가치 있다, 중요하다 등을 사용)”
- 비교문 형태-”성장보다 분배가 더 중요하다”, “북한의 인권 문제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보다 중요하다”
- 부정문 형태-”악성 댓글은 인터넷 민주화에 해롭다”

# 정책 토론 논제 구성법

- ‘~해야 한다’(‘~해도 된다’로 하면 대립적 토론 구성 이 안 됨)라는 의무적 서술문을 지닌다-“시행해야 한다”, “실시해야 한다”, “합법화해야 한다”, “허용해야 한다”, “금지해야 한다”, “규제해야 한다”
- 행위 주체자를 분명하게 명시해야-”정부는 신용 불량자 구제제도를 시행해야 한다”
- 긍정 진술문-현 상태의 변화를 희망(“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”)
- 부정 진술문- 현 상태의 유지를 희망(“사형제도는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”)
- 불법적이지만 사회 관행상 허용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 상태의 변화를 명시할 것-”임신중절을 합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”

# 준정책 토론 논제

- 준정책 토론이란 정책 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가치 토론을 의미
- 예컨대 사형제, 임신 중절, 인간 배아복제, 소극적 안락사, 신상 공개 등 가치 판단이 정책의 중요한 판단 요인이 되는 것
- 한 논제가 정책 토론과 가치 토론으로 나뉠 수 있다-”사형제는 폐지해야 한다”/”사형제는 비윤리적이다”

# 토론 논제 설정 과정

- 가능한 모든 분야를 열거하고 각 분야와 관련된 주제를 자유롭게 연상한다
- 나열된 주제들을 좁혀간다-청중들의 관심이 있고 시의성 있는 것을 골라낸다
- 정해진 분야('인터넷')에서 구체적인 논제('초등생 인터넷방 사용 제한', '연령별 인터넷 등급제 실시', '학교 인터넷 교육)를 도출한다
- 핵심 논제의 단어나 구절을 면밀히 검토한다-'내신 등급제를 개정해야 한다'/'내신 등급제를 폐지해야 한다'

# 추정의 원칙 1

- 긍정측이 논제와 관련해 현 상태에 대한 중요성, 심각성, 시의성, 지속성 등을 제기하지 않으면 현재의 제도가 낫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추정한다(법정의 무죄 추정 원칙과 유사)-변화의 필요성이 충분히 제기되지 않으면 현 상태에 머무는 것이 낫다는 관점
- 변화는 비용과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긍정측은 변화의 필요성을 충분히 제기해야 한다- 청중이 논제를 받아들이게 만들어야!
- 추정의 원칙에 따라 긍정측과 부정측이 아무 발언 없이 끝난다면?-부정측 승리!(동점 상황에서도 마찬가지)
- 긍정측 입증 책임으로 부정측이 유리한 고지

# 추정의 원칙 2

- 긍정측에게만 부담 지우는 추정의 원칙?
- 부정측이 대체 방안이나 부분 개선을 주장할 경우-부정측이 증명 부담 지닌다
- 부작용이 더 심하므로 긍정측 방안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을 제기할 경우-부정측이 입증의 책임을 진다
- “정부는 노숙자들을 위해 직업 재활교육을 시행해야 한다”의 경우 너무 당연한 논제이기 때문에 직업 재활교육의 부작용이 토론 주요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-부정측이 이에 대한 입증의 부담 지닌다(“정부는 신용 불량자의 카드빚을 탕감해야 한다”의 경우 부작용 관련 많은 자료 추정이 가능해 부정측의 부담 적다)

# 입증의 책임

- 추정 원칙에 의거, 긍정측은 논제의 사실이나 가치, 정책에 대한 변화를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진다(검사가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과 동일)
- 입증은 기존의 믿음, 평판, 정책, 제도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측이 그 필요성과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-무책임한 발언이나 근거 없는 공격은 불가
- “원전센터 유치는 그 지역에 이익이 된다”의 경우-긍정측이 먼저 이익이 되는 것을 입증해야 할 책임. 부정측은 긍정측이 제시하는 이익이 큰 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면 승리!

# 논제 관련성

- 논제가 명시하는 범위 안에서 토론을 진행해야-긍정측이 토론에서 제시하는 사례나 용어, 개념들을 논제의 틀 안에서 이뤄질 수 있게 분명히 정의해야(부정측은 이를 꼭 따를 필요 없다-긍정측이 '행정수도'와 '수도'를 구분한 경우 부정측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반론 제기할 수 있다)
- ‘건강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’는 논제에서 “담뱃값을 인상해 재정에 투입하자”는 논지를 펼친다면?-부정측 공약의 발단이 된다

# 반증의 책임

- 긍정과 부정 모두에게 적용-상대의 허약한 주장을 공격하고 자신의 허약한 주장을 보강할 책임
- 긍정측이 입증의 책임을 지고 부정측의 이에 대한 반증의 책임을 짐으로써 부정측이 먼저 행사
- 긍정측이 입증에서 제시한 사안을 점검해 한 가지 이상 효과적으로 반증하면 부정측 승리!

이는 법정 토론에서 검사가 중형으로 기소하여도 벌금형으로 판결 난다면(일부 승소 판결) 변호사의 승리인 것과 마찬가지로.

# 사실 토론의 필수 쟁점

- 필수 쟁점이란?-토론의 찬반 담론에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쟁점 사안으로, 각 토론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
- 사실 토론의 필수 쟁점은 ‘상태 이론’을 바탕으로 함-’상태 이론’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제기한 이래 오늘날에도 법정이나 정치계 논쟁에 자주 등장하는 개념

# 사실 토론의 4가지 필수 쟁점

- 추측의 상태-사실에 대한 행위 유무를 추정하는 상태(부유한 사람이 절도죄로 기소됐을 때, ‘충분한 부를 가진 사람이 작은 물건을 훔칠 필요가 없다’고 변호하는 것)
- 정의의 상태-언어 정의를 통해 상태나 상황을 유리하게 규정하는 것(조세형의 ‘大盜’ 발언, 정치인의 ‘대가성 없는 거래’, ‘광주 사태’와 ‘광주 민주화’ 표현 등)
- 정도의 상태-합리화, 변명, 관용에 호소하는 것(예: 상습적 폭력 남편에게 가해한 아내가 남편에게 원인제공을 돌리는 경우, 충동적이고 우발적 행위임을 강조하는 경우, 행위 결과가 긍정적이라고 항변하는 경우)
- 절차의 상태-논의 과정과 절차에 대한 쟁점 통해 상황을 규정하는 것(후세인의 예). 교재 306쪽 참조

# 정책 토론의 필수 쟁점

- 주요 용어 및 개념 정의/ 문제의 역사적 배경 및 이론적, 철학적 근거(예: ‘사형제’가 논제일 경우 개인 생명권에 대한 이론적, 철학적 근거를 제시)
- 정당화/당위성-중요성, 심각성, 시의성, 문제의 지속성을 주장함으로써 가능
- 방안 제시-가치 토론과 다른 점. 긍정측은 행위 주체자들의 인식, 가치, 태도 등을 바탕으로 실행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해야
- 이익과 부작용-긍정측은 다소 부작용이 있어도 이익이 있다는 주장을, 부정측은 부작용을 더욱 강조(교재 312쪽 참조)

# 가치 토론의 필수 쟁점

- 정의의 쟁점-모든 토론에서 중요하나 가치 토론에서의 비중이 더욱 높아(‘배아 복제 허용’은 “과학에 대한 믿음”-긍정측/”인간에 대한 불신”-부정측으로 정의됨. 수사적 기법 요구됨)
- 가치 우선 순위 쟁점-예: ‘성장’과 ‘분배’를 두고 각각 우선순위를 제시. 긍정측은 제시한 가치의 우선순위가 보편적 가치이며 고정적이라고 주장, 부정측은 우선순위가 임시방편적이며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쟁점화 가능)
- 가치 판단기준 쟁점-예: ‘안락사는 비윤리적’이라는 판단에서 긍정측은 안락사를 사회 공동체 문제라는 판단기준을 제시, 부정측은 개인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)
- 대상의 판단 방법 쟁점-긍정측이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효과, 중대성, 내재성 등을 제시하면 부정측은 이를 부인하여 쟁점 벌인다(교재 317쪽 참조)

# 토론의 구성

- 입론, 질문, 반박
- 입론은 긍정측이 먼저 시작
- 교차조사는 상대가 제기한 주장의 문제점을 부각해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는 과정
- 반박은 상대의 입론과 교차조사에서 제기한 주장을 반박하며 자신의 입론과 교차조사에서 나타난 입장과 주장을 강화시키는 것-자신의 논리가 더 논리적이라고 설득하는 행위

# 입론 구성(긍정:부정)

- 주요 용어/개념 및 문제의 역사적 배경과 이념적 철학적 근거:부정측에 유리한 개념 및 용어
- 정당화/당위성을 중요성, 심각성, 즉시성, 지속성을 중심으로 주장:중요하지 않다거나 문제가 크지 않다고 주장
- 방안에 대한 실행 가능성과 해결성:~부족하다, 미비하다, 아직 때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해결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
- 이익이 부작용보다 크다고 주장: 부작용을 강조하거나 인과 관계에 의문을 제기
- 부정측의 부분 개선 및 대체 방안 제시는 조심스러워야(교재 327~333 참조)

# 교차조사 구성

- 대립 쟁점을 보다 명확히 드러냄으로써 토론 쟁점의 방향을 제시하고 설정
- 상대측 주장에서 제시한 용어와 개념 정의의 부적합성을 공략,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정의할 수 있는 기회
- 증거에 대한 분석적 사고력 배양-준비과정에서 논거, 근거, 증거, 자료 등에 대한 장단점 파악하게 만든다(해당 자료의 편향성을 지적할 수도 있다)
- 상대방 주장에 귀를 기울이게 한다-비판적 듣기의 실천
- 직접 문답식 교환-토론의 대립적 역동성 가미. 청중의 관심과 흥미를 더할 수 있다. 상대방의 짧은 답변을 유도하며, ‘어떻게 생각하십니까?’와 같은 개방형 질문과 비논리적인 질문은 피한다. 상대방 답변을 사전에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. 만약 그렇지 못하면 역공을 당할 우려가 있다. 교차조사 시간을 상대방에게 빼기면 안 된다. 답변자는 말솜씨만으로 방어해선 안 된다
- 토론 윤리를 지키며 인신공격적 발언을 삼간다

# 반박 구성

- 토론의 최후 발언-앞서 주장한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을 가려내 우위를 점검하며 청중을 설득해야. 이를 위해선 상대 토론자가 주장한 내용을 밝히며 우위를 설정해야
- 대립적 쟁점들에 대해 각각의 장단점 비교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해야-불리한 쟁점은 피한다
- 준비할 수 없다?-준비 과정에서 반박 활용에 필요한 쟁점과 관련 근거, 자료를 요약해야!
- 순서에 따른 전략 필요-긍정측은 후미효과를 이용해 상대방의 모순을 공략하며, 부정측은 증거를 제시하며 상대방에게 답변을 요구함으로써 부담을 안길 수 있다(교재 345~350 참조)

# 토론 평가

- 논증력(용어 정의, 구성과 전개, 분석력 관련)
- 비판적 사고 및 응용(준비성과 창의력 관련)
- 전달력(언어, 비언어 스타일)
- 교재 357~365 참조